사경(Tetrateuch)과 신명기에 나타나는 נַחֲלָה(나할라/기업)의 의미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규승 | 숭실대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모세오경에 많이 등장하는 נַחֲלָה(나할라/기업)가 모세오경 내에서도 그 의미하는 바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우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언약(약속)의 내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언약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땅, 큰 민족, 이름, 임재와 보호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다. 데이비스(E.W. Davies)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 약속(땅 약속)은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살아있는 권능과 생식 능력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

www.kci.go.kr

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반복되거나 재해석되었기 때문이다."[1] 그러므로 이 소고에서는 특별히 땅 약속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주목할 것이다. 특별히 사경(tetrateuch)[2]과 신명기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왜 신명기에서는 그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모세오경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3]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 모든 표현들 중에서 נַחֲלָה(나할라/기업)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으로서의 '기업' 이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2. 연구사

신명기의 저자와 기원에 대한 논란은 구약신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는 본 논고가 고

---

1) R. E. Clements e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350, E. W. Davies의 "Land; its rights and privileges".

2) 여기서 '사경' 이란 M. Noth가 말한 바와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말한다.

3) '약속의 땅 가나안' 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는 '아훗자' (אֲחֻזָּה)이다. '아훗자' 는 '나할라' 와 의미가 비슷하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을 '아훗자' 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신명기 32장 49절이다. 이 구절에서는 가나안 땅은 '아훗자' 로 주어졌고, 그 땅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라고 복수 형태로 나와 있다. 이에 반해 '나할라' 로서 주는 땅은 항상 단수만이 사용된다. 사경에서 약속의 땅을 '아훗자' 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은 창세기 17장 8절; 48장 4절이 있고 출애굽기에는 없다. 레위기에는 14장 34절에서 가나안 땅을 '아훗자' 로 소개하고 25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32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민수기 32장 32절과 35장 2절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아훗자' 와 '나할라' 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을 뜻하는 '모라샤' (מוֹרָשָׁה)이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야라쉬'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두 번 사용된다. 출애굽기 6장 8절과 신명기 33장 4절이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모라샤)으로 삼게 하리라." 그러나 신명기의 나오는 경우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 않는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율법(토라)을 야곱의 총회의 '기업' (모라샤)이라 말하고 있다.

www.kci.go.kr

찰하는 바, 사경과 신명기의 '나할라' 개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신명기의 저자와 기원에 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고에서는 먼저 외국학자들의 연구사와 국내학자들의 연구사로 구분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외국 학자들의 연구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명기 저자와 기원에 대한 논란은 매우 다양하며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본 논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많은 견해들 가운데 첫째, 저자에 대한 견해, 둘째, 그 저작 지역에 대한 견해로 나누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레위인 저작설, 예언자 저작설, 서기관 저작설이다. 레위인 저작설의 대표자는 게르하르트 폰 라트(G. von Rad)이다. 그는 신명기가 주전 7세기에 북이스라엘의 레위인들에 의해 북쪽의 한 성소(세겜)에서 기원했으며 후에 요시야왕에 의해 종교개혁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졌다고 믿는다. 그는 신명기의 출처를 고대 암픽티오니 계약 갱신 제의의 한 중심지인 세겜의 가을 축제라고 보며 이 세겜 전승은 시내산 계약 갱신의 전승 자리로 규정된다.[4] 자연히 이 제의의 핵심인 레위 제사장들은 긴 설교체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제의적 현장감을 갖고 구속사적 사건들의 생생한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5]

예언자 저작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니콜슨(E. W. Nicholson)이다. 그는 "신명기 저술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주전 721년의 대재난 직후에 국가 전체의 장래가 유다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안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

4) G. von Rad, *Deuteronomy IDB* vol. I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831–838. 특히 834쪽과 837쪽을 참고하라.

5) G. von Rad, *Studies in Deuteronomy*, tr. David Stalker(London: SCM Pres, 1953), 67.

www.kci.go.kr

예루살렘에서 신명기 저술 작업을 착수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전승들을, 그들이 기대하는 바, 유다의 당국자들에 의해 언젠가는 수용되고 실행될 만한 하나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예루살렘 전승들의 특정 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하나의 중요한 관점, 즉, 예배의 중앙화에서는 예루살렘 전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소원은 결국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성취되었는데, 드디어 신명기가 그의 통치 중에 실시된 개혁 운동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고 주장한다.[6] 또한 니콜슨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암픽티오니 계약갱신 축제 때 계약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7]

바인펠트(M. Weinfeld)는 신명기가 궁중서기관들에게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요시야왕 때 궁중서기관 사반 가계와 신명기학파를 연결하려고 시도했다.[8]

둘째, 신명기의 저작 지역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버니(C.F. Burney), 알트(A. Alt), 라이트(G.E. Wright), 존 브라이트(J. Bright). 니콜슨 등은 북쪽 기원설을 주장하고 드라이버(S.R. Driver), 폰 라트, 클레멘츠(R. E. Clements) 등은 남쪽 기원설을 주장한다.

니콜슨은 신명기 안에 암픽티오니적인 계약신학, 거룩한 전쟁 사상, 반 가나안 종교사상, 엘로히스트 신학, 그리고 반 왕정사상 같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전승들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기원설을 주장한다.[9] 반면에 남쪽 기원설을 주장하는 클레멘츠는 신명기 중에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및 제의적 전승에 친밀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에 많은 관심

---

6) E. W. Nicholson, *Deuteronomy and Tradition*, 「신명기와 전승」, 장영일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191.

7) 윗글, 115–117.

8) M. Weinfeld,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158–178.

9) E. W. Nicholson, 윗글, 115–150.

www.kci.go.kr

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10]

2) 국내 학자들의 연구사

장일선은 신명기의 저자와 시기에 대해서 클레멘츠의 의견을 거의 수용하여, "북왕국의 종교 운동가들이 북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남하하여 히스기야 정부와 손잡고 활동하다가 므낫세 치하 때 다시 잠적하면서 성전에 감추어둔 개혁백서가 신명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나, 북 왕국 운동권의 레위 계열 사람들이 남 왕국에서 받아들여졌던 이유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추적한다. 그리고 원신명기와 포로기 신명기 역사가가 완성한 최종 형태의 신명기를 구별한다.[11] 노희원은 신명기 역사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세 엘리트 계급의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열왕기하 22장에서 제사장 힐기야가 그 법전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했으며, 예언자 훌다가 이 법전을 진단했음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12]

1931년에서 2010년까지 한국 신학자들이 쓴 구약학 박사 학위를 연구한 김상례에 의하면, 신명기와 히스기야를 연결시키는 논문은 박신배의 "신명기 역사에서 나타난 히스기야 개혁의 전승사적 연구"뿐이다.[13] 박신배는 그의 글에서,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초기 신명기 역사 전승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시대에 제의 중앙화와 제의개혁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히스기야 시대에 신명기 율법이 기록되었고 므낫세 시대에 숨겨졌다가 요시야 시대에 발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설

---

10) R.E. Clements, 'A dialogue with Gordon McConville on Deuteronom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56 (2003 number 4) 508–516; R.E. Clements, *Deuteronomy*, 「신명기」, 정석규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2002), 109–134.

11) 장일선,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5 신명기」,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3), 35–45

12) 노희원, 「최근의 신명기역사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28–49.

13) 김상례, "한국인 구약학 박사학위 논문(1931–2010)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 분석", 「구약논단」 제 39집 (2011), 190–198

www.kci.go.kr

득력이 있다."[14]고 주장한다. 또 그는 "앗시리아의 종교정책과 히스기야 종교개혁"이라는 논문에서는 신명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지만, 히스기야 종교개혁이 앗시리아의 종교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의 중앙화 조치로서 수반되는 성소 철폐가 가진 의미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룬다.[15]

신정규는 요시아의 성전 수축의 의미를 연구하면서, 신명기 법전이 편찬되고 완성된 시기에 대해서, "요시아의 성전 수축과 더불어 유수기 이전의 신명기 법전이 편찬되었고 신명기 역사의 주요 부분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면서, 각주에서 "신명기가 히스기야와 요시아통치 사이에 정형화되었다는 견해를 선호한다. 그리고 그 법전이 공시적으로 선포되고 실행된 것은 요시야 재위기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고 있다.[16]

이은우는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면서 범 신명기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적 개념인 신명기 사가 이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가 가진 사본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차이들의 이유들을 살펴보고, 본문과 문서의 역사를 추적 탐구하여 원문(vorlage)을 재구성하는 작업에까지 도달해 보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연구"라고 주장한다.[17]

둘째, 신명기의 '땅 신학'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이다. 신명기의 핵심에 '땅 신학'이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들어 와 바인펠트(M. Weinfeld), 브루그만(W. Brueggemann), 하벨(N. C. Habel) 등에 의해 활발한 연구와 저작이 이루어

14) 박신배, "신명기 역사서의 제의 개혁과 신학", 「구약논단」 제 19집 (2005), 108.

15) 박신배, "앗시리아의 종교정책과 히스기야 종교개혁," 「구약논단」, 제 12집 (2002), 83-99.

16) 신정균, "요시아 성전 수축: 요시아의 개혁과 관련한 역사적 접근", 「구약논단」, 제 5집 (1998), 74.

17)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제 29집 (2008), 80-82.

www.kci.go.kr

졌다.[18]

최근 국내 학자들 중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단행본으로 출판된 저작은 희소한 상황이다. 한민수는 단행본인 「신명기와 땅: 언약의 눈으로 보기」를 통해[19] 신명기에서 '땅' 주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사경과 신명기의 '나할라' 사용의 차이점이라든지 신명기와 히스기야나 요시아 개혁과의 연관성에 대한 시도가 없다.

강성열은 "신명기에 나타난 땅의 신학"이란 소논문을 통해 신명기에 나오는 땅의 신학과 관련해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필요함",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함"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20] 그러나 여기서도 사경과 구별되는 '나할라'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김지은은 신명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업으로서의 땅 개념을 연구한다. 그는 신명기에 나오는 '나할라'와 관련된 땅 표현양식에는 주목하지 않고, 오직 땅의 소유와 관련된 윤리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즉,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고 땅의 소유가 박탈되었거나 축소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표지라고 주장한다.[21]

"신명기의 땅 표현 양식 연구"(A Study of land formulas in Deuteronomy)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미숙은 신명기에 나오는 "내가 네게

---

18) '땅 신학'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M. Weinfeld, *The Promise of the Land*,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Norman C. Habel,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Minneapolis:Augsburg Fortress, 1995), Walter Brueggemann, *The Lan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등이 있다.

19) 한민수, 「신명기와 땅: 언약의 눈으로 보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8).

20) 강성열 "신명기에 나타난 땅의 신학",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아카데미, 2009), 85-102.

21) 김지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업(נחלה)으로서의 땅 개념 연구", 「구약논단」 (2000) 제 9집, 215-234.

www.kci.go.kr

준 땅"(93회), "내가 네게 주기로 맹세한 땅"(55회),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23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19회) 등의 '땅 표현 양식'에 주목한다. 그는 또 "신명기 10장 12절-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사"라는 소논문에서 "땅 점유의 주체자로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점유 유형의 잇따른 반복은(신명기 11장 8, 11, 12절) 권고의 내용에 대한 시점과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후손들과 관련되어 나타난 땅 표현양식(11장 9, 21절)은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야훼의 율법을 수행하는 역사적인 무대요, 땅의 수여자인 야훼를 경험하는 신학적인 무대로 땅을 해석하게 해준다."[22]고 주장한다. 이미숙은 신명기 11장에서 "국가적 차원의 땅 점유" 약속에 주목하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2인칭 단수)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 표현이 함유할 수 있는 의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3.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할 뿐 '기업'(나할라)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 창세기에 나오는 약속의 땅

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12-25장)

① 첫 번째 약속 : 12장 7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אֶרֶץ 에레츠)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첫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22) 이미숙, "신명기 10장 12절-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사", 「구약논단」 제 33집 (2009), 65.

www.kci.go.kr

다. "내가 이 땅(에레츠)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12:7) 이 첫 번째 약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보여주고자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② 두 번째 약속 : 13장 14-15절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떠났다. 롯이 떠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에레츠)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역시 약속의 땅을 '나할라' 가 아닌 '에레츠' 로 표현하고 있다.

③ 세 번째 약속 : 15장 7절;18-21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자손과 땅 약속을 한지 벌써 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은 땅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주신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레츠)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땅 약속 확증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소유하도록"[23]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한층 더 강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15장 8절) 아브람의 바로 이 질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24] 그리

23) Moshe Weinfeld,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313-316. 바인펠트는 "야라쉬 하아레츠"(땅을 소유하다)라는 표현이 신명기 전체에 걸쳐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잘 파악했다. 그러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표현은 '나할라' 와 의미가 비슷하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24) Moshe Weinfeld, *The Promise of the Land*,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184. 바인펠트는 15

www.kci.go.kr

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약속의 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레츠)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15:18-21)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정해진 땅의 경계 묘사이다. 바인펠트는 이렇게 경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고대 언약 문서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우가릿이나 엘레판틴 언약 형식과 비교를 통해서 입증했다.[2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에서 이렇게 정해진 땅들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들은 어떤 특정한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던 사실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스라엘의 땅이 언제든지 이렇게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6]

④ 네 번째 약속 : 17장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마지막 약속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에레츠)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거류하는 땅',

---

장 16절("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에 기초하여,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도 '땅 약속의 조건성'(conditionality of the promise of the land)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책 9장에서 바인펠트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unconditional)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언약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 정치적 조약(political treaty)과 왕의 하사 조약(royal grant)으로 분류하며, 후자는 봉신들의 신실함이나 충성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조건 없는 조약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바인펠트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상반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5) Moshe Weinfeld, 윗글(1972),78, Moshe Weinfeld, 윗글(1993), 260. 바인펠트는 민수기 34장에 기초해서 요단 동편의 땅은 약속에 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는 요단 동편의 땅이 약속의 땅에 포함된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왕조 시대 때이고 히스기야와 요시아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게 되어서 이러한 이상적인 국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한다.

26)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John J. Scullion S. J. tr. (London: SPCK, 1985), 229.

www.kci.go.kr

'가나안 모든 땅'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신시켜 주신다. "네가 거류하고 있는 장소의"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듯이 나그네(게르)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그 땅에 아무 근거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아훗자(אֲחֻזָּה)되게 하신다. '아훗자'로 표현되는 또 다른 구절은 창세기 23장 4, 9, 20절이다. 3절 모두 '매장할 소유지'(אֲחֻזַּת־קֶבֶר 아훗차트 케레브)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영원한 아훗자'로 주시겠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사용하려는 '아훗자'는 차이가 난다. '매장할 아훗자'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⑵ 이삭에게 하신 약속(창세기 26장 1절–28장 9절)

① 첫 약속 : 26장 2–4절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하신 첫 약속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이러한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과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에게 하는 약속과의 긴밀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너는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왜냐하면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들(에레츠)을 주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성취할 것이며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들(에레츠)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26:3–4, 私譯)

26장에는 이삭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진술을 만날 수가 있다. 우물

www.kci.go.kr

의 이름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26장 22절) 이 구절에서는 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에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삭은 이 이름으로 지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는 땅(에레츠)에 대한 이삭의 신앙고백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28장 4절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에레츠)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은 자손에 대한 약속인 반면, 4절은 자손에 대한 약속의 확인이다.[27]

여기서 소유할 대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네가 거류하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칠십인역에 의하면 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칠십인역은 관계대명사를 '헨'(ἣν), 즉, 여성 단수 대격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땅(γῆν 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에 근거해서 다시 옮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으로, 네가 거류하고 있는 땅'이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을 소유할 대상은 바로 야곱임을 명시함으로써,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동일한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3) 야곱에게 하신 약속(28:10절-50장)

① 첫 약속: 28장 10-15절

27) Claus Westermann, 윗글, 448.

www.kci.go.kr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번의 약속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28장, 35장) 예전에는 루스였으나 야곱이 하나님의 현현과 그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벧엘로 개명했던 장소이다.[28]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린 하나님의 약속들과 동일하다.

② 두 번째 약속: 35장 1–15절

야곱은 벧엘로 올라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벧엘'(벧엘의 하나님)이라고 짓는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약속에서도 땅 약속은 빠지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레츠)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에레츠)을 주리라."(35장 12절)

이 약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맨 먼저 나오는 내용은 "땅"이다. 35장 12절의 상반절은 야곱에게 준 땅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연결시킨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그 동일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 땅을'(אֶת־הָאָרֶץ 에트 하아레츠)로 시작해서 '그 땅을'(אֶת־הָאָרֶץ 에트 하아레츠)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미상관(inclusio)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에서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35장 6절)'이다. 야곱은 같은 땅에서 같은 약속을 거듭해서 받고 있다.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 약속에 대한 신앙

28) M. Weinfeld, 윗글(1993), 26–41. 바인펠트는 이스라엘 정착 방식을 아홉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중의 하나가 '땅 이름짓기'(Naming the Land)이다.

www.kci.go.kr

고백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48장 3-4절) 야곱에게는 두 약속에 한 구절이 첨가된다. '영원한 소유'(아훗자트 올람)가 되게 하리라."[29] 이 구절은 창세기 17장 8절(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거의 동일하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회상하면서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 약속에 대한 신앙고백이나 확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방식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다. 48장 22절이다. "내가 네 형제보다 세겜[30]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만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칼과 내 활로", 즉, "자기 자신 힘으로"[31] 획득한 것임을 야곱은 증거한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 것처럼 보인다.

창세기에서 '나할라'가 사용되는 구절 중 하나는 창세기 31장 14절이다. 이 말은 야곱의 무리를 좇아온 라반에게 그의 딸들이 한 말이다. 하벨은 그의 책에서 '나할라'를 '유산'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나할라는 단순히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된 사회적 관습, 법적인 과정, 신의 인정 등에 의

---

29) 김회권, 「모세오경 I」(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5), 200.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요셉에게 상속하고 있다.

30) Claus Westermann, *Genesis 37-50*, John J. Scullion S. J. tr. (London: SPCK, 1985), 192. 베스터만은 '세겜'은 어느 특정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깨'로서 '작은 땅 떼기'(a smaller piece of land)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1) 윗글, 193.

www.kci.go.kr

해서 합법화된 한 집단의 권리나 정당한 재산이다."[32] 그러므로 '나할라'를 '유산'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33]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화는 위험할 수 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는 '나할라'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개념이 강하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명확한 의미로 사용된 곳은 48장 6절이다. "네가 이들 후에 낳을 네 자식들은 너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 형들의 이름에 의해 그들 유산으로 호출 될 것이다."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이 각각 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땅 약속에서 '아훗자'로서의 땅을 간혹 찾아볼 수 있으나, '나할라'로서의 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산'이란 의미로의 '나할라'는 사용되고 있다.

2) 출애굽기에 나오는 약속의 땅

⑴ 출애굽기 3장 8, 17절; 33장 3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족장들에게 한 땅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3장 8절) 단순히 "내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묘사들이다. 창세기에

---

32) Norman C. Habel,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Minneapolis:Augsburg Fortress, 1995), 2장 부설을 참조하라.

33) 윗글, 5장을 참조하라.

www.kci.go.kr

서는 결코 나오지 않은 묘사들이다.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장소(마콤)'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열거한 내용은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다.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민수기 14장을(특히 7,8절) 다루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연결해서 설명한다.[34]

민수기 14장 7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매우 매우 좋은 땅"(הָאָרֶץ אֲשֶׁר עָבַרְנוּ בָהּ לָתוּר אֹתָהּ טוֹבָה הָאָרֶץ מְאֹד מְאֹד 하아레츠 메오드 메오드)으로 같은 부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다.

(2) 출애굽기 6장 1–9절(4,8절 중심)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지 않은 계시이다. 그러나 그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내용이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4절)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뜻이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들과 나의 언약을 체결했으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 안에 거류하고 있는 그들의 거류하는 장소의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족장들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은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고 있는 그들의 거류하는 장소'[35]를 주는 것이다.

---

34) Walter Brueggemann, *The Lan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34.

35) 출애굽기 23장 20절도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히 번역하면 '내가 정해놓은 그 장소로'가 되어 비슷하다.

www.kci.go.kr

(3) 출애굽기 13장 11절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수많은 규정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면서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11절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36]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그가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 약속을 회상하면서 고백적인 차원에서 '맹세' 라는 말을 사용했었다. 모세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을 직접 맹세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4)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지 서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사는 땅", 곧 "가나안 땅 접경"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여기서 신명기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은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역사서로 분류되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37] 그렇다면 요단 동편에 있던 땅, 즉, 르우벤과 갓과

36)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HALOT), ed. by L. Koehler and W. Baumgartner, vol. Ⅰ, 471. 이 구절의 맨 앞에 나오는 "웨 하야 키"는 종속절을 이끄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시간 종속절'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when'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해서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네게 주실 때에'가 된다.

37) 여호수아 5장 10–12절.

www.kci.go.kr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은 본래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38]

(5) 출애굽기 32장 13절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다. 이 사건 앞에는 성막 설계도가, 뒤에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39] 모세는 세 명의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땅 약속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한다. 하나는 자손들의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내가 말했던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의 자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나할)."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나할' 동사와 처음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이 구절에서는 그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목적어를 임의로 첨가하여 읽고 있다.[40]

이외에 출애굽기에서 '나할' 나 '나할' 이 사용된 구절은 15장 17절과 34절 9절이다. 15장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다.[41] 구체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이 본래 자신의 '나할라' 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42] 34장에서 모세의 간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업으

38) Moshe Weinfeld, 윗글(1993), 55-64을 참조하라.

39) 김회권, 윗글, 287-288. 성막 설계도와 성막 건축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을 배치한 이유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40) 사마리아오경은 칠십인역, 시리아역과 더불어 "나할"(소유하다)의 목적어를 첨가하여 읽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41) 김회권, 윗글, 248.

42) William D. Davies, *The Gospel And The Land ; early Christianity and Jewish and Jewish territorial doctrin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7-31. 데이비스는 약속의 땅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제시한다.

www.kci.go.kr

로 삼아달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업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출애굽기에서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레위기에 나오는 약속의 땅

⑴ 레위기 14장 33-34절

레위기에서 땅 약속은 14장에서 처음 나온다. 그러나 이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부차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여기서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관계사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아훗자)으로 주는"이다.

⑵ 레위기 20장 24절

레위기 20장은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들이나 죄에 대한 내용들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직역하면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의 땅(아다마)을 소유할 것이다(야라쉬)."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그런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땅)을 주어 그것(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레츠)을 소유하게 하리라(야라쉬)." 가 된다. 한글 번역에서는 "기업"과 "유업"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나할라'는 아니다.

⑶ 레위기 25장

이 장은 레위기 전체 뿐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 장은 땅 표현과 관련해서 커다란 특징이 하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레츠)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 약속의 땅을 '자기의 소유지'(아훗자)(13, 24, 27,28,34), '그의 기업'(아훗자)(28,33,41), '그의 소유'(아훗자)(32,33,45,46)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중

www.kci.go.kr

에서도 34절에 나오는 '영원한 소유지'는 '아훗자트 올람'으로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 약속과 창세기 48장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한다. "토지는 내 것이고", "너희들은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43]

(4) 레위기 27장 21, 28절

흔히 레위기 27장은 부록으로 본다. 1-26장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인프라는 성막이다.[44] 그러므로 27장에서 성소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확충 주제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1절은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아훗자)이 되는 땅에 대해서, 28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기업(아훗자)의 밭이라 할지라도 무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다룬다.

레위기에서 '나할'(소유하다)이라는 단어가 25장 46절에서 한 번 사용된다. 이것은 명사 표현이 아니라 동사이다. 그러나 '기업으로 주는 대상'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레위기에서는 일관성 있게 가나안 땅을 '아훗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할라'가 파생되어 나온 '나할' 동사가 한 번 사용되나 그 대상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4. 민수기에는 레위인의 기업과 슬로브핫의 딸들의 기업과 같이 개인적, 가문적 차원으로 나타난다.

1) 레위인들의 기업에 관한 구절들(16장 14절; 18장 20,21,26절; 26

43) 김회권, 「모세오경 II」 (서울:대한기독교서회,2006), 105.

44) 윗글, 112-113.

www.kci.go.kr

장62절)

'나할라' 로서 땅은 민수기에서는 16장에서 처음 언급된다. 레위인들이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다. 그 때 한 말이 16장 14절이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의 기업(나할라)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반역은 '일종의 영 민주주의적인 평등주의 개혁요구'[45]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할라' 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장 20절은 아론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기업으로서 땅' 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나할라)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1절과 26절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는 기업(나할라)' 이다.

2) 슬로브핫의 딸들의 기업과 관련된 구절들(27장 1-11절; 36장 1-13절)

민수기에서 '나할라' 는 슬로브핫의 딸들과 관련해서 모두 21번 언급된다. 김회권은 이러한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두 번의 기사, 특히 36장은 "민수기의 전체 논지를 확연하게 부각시켜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46] 슬로브핫은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주어진 '나할라' 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할당된 '나할라' 를 요청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다섯 딸들에게 아버지의 '나할라' 를 나눠준다. 36장에 의하면 모세는 다섯 명의 딸들에게 각자의 몫으로 '나할라' 를 나눠주었다.

모세는 이 법에 기초하여 좀 더 현실적인 법들을 제정한다. 딸들조차 없으면 '나할라' 를 그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

45) 김회권, 윗글(2006), 152.

46) 윗글, 214.

www.kci.go.kr

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나할라'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명한다. 이 두 장은 가장 많이 '나할라'를 사용하나 모두 극히 개인적이거나 가문적인 경우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관련된 구절들(32장 19,32절; 34장 14-15절)

민수기에서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제 2의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묘사한다(32장 6-15절). 이 때 그들의 답변에 땅과 관련된 말이 나온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나할)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나할라)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32장 19절) 그들은 이어서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32장 32절)라고 말한다.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어색하여 상반절과 하반절의 논리적 연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웨이탄누'(וְאֹתָנוּ)에 대한 다양한 읽기들이 제시되었다. 마소라 텍스트는 전치사 '에트'(אֵת)에 일인칭 복수 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다르게 읽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서 우리에게 소유를 줄지니라."(καὶ δώσετε τὴν κατάσχεσιν ἡμῖν ἐν τῷ πέραν τοῦ Ιορδάνου) 이렇게 읽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33절은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세 지파를 열거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기업(나할라)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4)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련된 구절들(26장 53-56절; 33장 54절; 34장 17-18, 29절 35장 2,8절)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들이

www.kci.go.kr

많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온다. 이것은 가나안 땅 분배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26장 53절) 한글 번역은 확실하지 않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들에게 너는 그 땅을 기업(나할라)으로 나눠 주어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26장 1-5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나할라'로 나눠주는 방식은 54-56절에 나온다. 이 내용은 민수기 33장 54절과 평행을 이룬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와는 달리 가나안 땅을 '나할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다. 그러나 그 사용하는 대상은 극히 개인적인 차원들이다. 예를 들어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 형제나 부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특정 지파, 즉, 레위 지파,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련해서 '나할라'를 사용한다.[47] 그렇지만 모두 복수 형태로 나온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다른 경우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나할라'를 염두에 둔 것 같다.

5. 신명기에는 '나할라'가 단일한 민족적 기업으로 나타난다.

1) "너에게 기업으로 줄 땅"[48]

신명기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 중 하나는 바로 땅의 신학이라는 견해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을 묘사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47) 나할라 명사만 12번이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슬로브핫 딸들의 경우에 비하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 신명기 1:38; 4:21,38; 15:4,5; 19:3,10,14; 21:16,23; 25:19; 26:1.

www.kci.go.kr

땅을 기업(나할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할라로서의 땅'이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기업'(나할라)으로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은 사경(Tetrateuch)과 신명기의 차이점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하나의 고정된 공식 문구라고 할 수 있다.[49]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땅"이다. 이러한 공식 문구를 담고 있는 구절들은 4장 21절, 15장 4-5절, 19장 10절, 20장 16절, 21장 23절, 24장 4절, 25장 19절, 그리고 26장 1절이다.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땅과 관련되어 있으나 20장 16절은 기업의 내용이 성읍들이고, 21장 23절은 땅이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공식 문구의 공통점은 관계대명사절에 주동사를 분사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50]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상이 일관되게 לְךָ(레카/너에게)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2인칭 남성 단수 어미로 이스라엘 전체를 한 사람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것을 단수 형태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공식 문구들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같은 맥락으로 주어진 구절들이

---

49) 한동구, 「신명기 해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4), 231. 이 책에서는 "땅 선물 공식"(Landgabeformel)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50) Gesenius, Wilhelm/ Kautzsch, E. *Hebraiche Grammatik*. Leipzig, 1909,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E.Kautsch 증편,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3) § 116. 분사 용법 중에서 "미래의 행위나 사건을 선포할 수 있는" 용법에 따르면, 이 공식 문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곧 주실 그 땅"

www.kci.go.kr

또한 발견된다. 1장 38절, 4장 38절, 19장 3절과 14절이다. 1장 38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사명을 가졌다고 모세가 말한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이다. 4장 38절은 "너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나할라)으로 주기 위해 너를 들어가게 한 것은 이 날과 같으니라." 그들의 땅은 '강대한 민족들의 땅'이다. 그리고 마지막 19장 3절과 14절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실(나할) 너의 땅 전부를 너는 셋으로 나눠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나할) 그것을 차지하게 할 너의 기업(나할라) 안에서 조상들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상들은 모두 2인칭 남성 단수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 문구이든 아니든 신명기에서 '나할라'로서 땅과 관련된 구절들은 그 대상을 단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51]

2) 신명기와 레위기-민수기의 평행구절 비교

첫 번째는 신명기 1장 34-46절과 민수기 14장 20-45절의 비교이다. 이 기사 모두 가데스바네아 사건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30절과 신명기 38절의 비교이다. 민수기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이라고만 나오는 반면, 신명기는 "그가(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나할)."라고 말하여 가나안 땅을 '나

51) 신명기에도 특징 지파에 관련해서 땅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 먼저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는 3장 18절과 20절이다. 이 구절들에서는 이 세 지파가 받을 땅에 대해서는 '나할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2인칭 복수 어미이다. 두 번째 구절은 29장 8절이다(마소라 본문은 29장 7절이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그것을 기업으로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이 구절에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대상들은 "세 지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 신명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단수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경우는 레위 지파들과 관련된 구절들이다. 10장 9; 12장 12절; 14장 27,29절; 18장 1,2절이다. 이 구절들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나할라)이 없음을 나타내는 구절들이다.

www.kci.go.kr

할' 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5장 1-11절과 레위기 25장 1-7절의 비교이다. 둘 다 면제년에 관한 규례이다. 레위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25장 2절)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바로 뒤 희년에 대한 내용에서 '자기의 소유지'(아훗자)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는 반면에, 신명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나할라)으로 주는 땅"(15장 4-5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 1-10절과 민수기 35장 9-28절의 비교이다. 모두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히 민수기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아훗자)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민수기 35장 28절)고 말하는 반면, 신명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나할라)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신명기 19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나할라)으로 주시는 땅에서"(신명기 19장 10절)와 같이 두 번이나 '나할라'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사경에서 말하는 땅에 대한 이해와 신명기가 말하는 '나할라' 로서 땅은 서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6. E. W. Nicholson의 신명기의 기원과 저작 집단에 대한 견해와 신명기의 '나할라' 개념의 상관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견해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고는 니콜슨(E. W. Nicholson)의 견해를 수용하고자 한다. 니콜슨의 견해가 완벽한 설득력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레이기(Peter C. Craigie)에 의하면 다른 의견들보다 절충적인 것이기 때문이며,[52] 그리고 왜 신명기에서의 기업(나할라)이 다른 사경에서의

52)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51-52.

www.kci.go.kr

기업 개념과 다른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역사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니콜슨은 신명기의 양식을 '계약 갱신 축제의 예전적 패턴'과 '설교체 스타일'로 규정한다.[53] 신명기를 제작한 사람은 고대의 계약 갱신 축제의 제의전승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는 이스라엘의 암픽티오니(지파동맹)에 뿌리를 두고 있다.[54] 니콜슨은 이에 근거하여 신명기에 나오는 중앙 성소, 성전(Holy War) 제도를 설명하며, 신명기는 왕정보다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즉, 예언자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는 실로, 벧엘, 길갈이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제의 중심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실로가 주전 약 1050년경에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후에 두 도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55] 그 가운데 아히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다.[56] 그러나 주전 8세기에 이르러서는 아모스와 호세아는 부패한 벧엘과 길갈을 비난한다(아모스 5장 4-5절; 호세아 4장 15절). 실로, 벧엘, 길갈이 무너진 후에는 암픽티오니 전승들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들의 연합조합'에 의해서 보존되었음을 증명해 나간다.[57]

니콜슨은 이러한 전승들이 어떻게 유다의 개혁 매뉴얼이 되었는지 질문한다. 알트(A. Alt)의 주장처럼, 신명기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재부흥운동의 개혁 프로그램이었는가? 니콜슨은 알트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신명기의 남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추적한다. 니콜슨은 폰 라

53) E. W. Nicholson, *Deuteronomy and Tradition*, 「신명기와 전승」, 장영일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90-91.

54) 윗글, 93.

55) 윗글, 113-117.

56) 윗글, 117-119.

57) 윗글, 123-146.

www.kci.go.kr

트(G. von Rad)의 견해도 취약점들을 부각시키며 비판한다. 니콜슨은 "신명기는 한 편으로는 시내산/모세 계약 전승들을 공표하려 시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가 유다 왕정의 이상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시함으로서 다윗/예루살렘 전승들에 정박하고 있다."라고 말한다.[58]

한 마디로 니콜슨의 논지는 "신명기는 주전 721년 북왕국의 붕괴 이후 남쪽 유다로 피신한 어느 북쪽 집단 가운데서 기원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자신들이 믿는 바 유다 당국자들에 의하여 이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공식화하였다."는 것이다.[59]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영토를 재탈환하여 다윗-솔로몬 시대의 '온 이스라엘' 로서 국가를 복원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 니콜슨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까지도 위태한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국가를 확립할 기회가 왔다는 재빠른 각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회권은 이사야서 10장 20-21절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과 남은 자들이 남유다로 쇄도하는 정경을 그린 것"으로 본다. 또 그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히스기야 왕실의 복속 노력도 진지하였다. 그는 왕세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한 백성으로 품으려는 정치적 배려도 베풀었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유월절 역법에 맞춰-남유다보다 한 달 늦게 유월절을 기림-유월절을 열고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60]

이러한 전망 속에서 신명기를 본다면 신명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의 이스라엘' 을 꿈꾼 히스기야 왕조의

58) 윗글, 165.

59) 윗글, 171.

60) 김회권, 「이사야 I」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6), 284.

www.kci.go.kr

진지한 노력의 산물이었고 '나할라'는 북왕국의 영토취득을 합법화하기 위한 신학적 술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할라'로 공식 문구처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위기나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레츠)이나 '아훗자'로 표현하나, 신명기는 평행을 이루는 구절들에서 약속의 땅을 '나할라'로서 규정한다. 단순히 표현에서가 아니라 '나할라'의 대상에서 사경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신명기는 일관되게 '너에게'(2인칭 남성 단수)만을 사용한다. 이것은 개인이나 특정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다분히 신학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6. 나가는 말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표현들을 '나할라'에 국한해서 조사했다. 창세기에서는 세 명의 족장들에게 땅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로 '에레츠'나 '아훗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나할라'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31장 14절) 유산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장소를 자신의 '나할라'로 묘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다는 내용뿐이다. 레위기에서는 구약에서 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으나 '나할라'나 '나할' 동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아훗자'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25장 46절에 딱 한 번 '나할라'가 나오나 그 내용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서 사는 '품꾼들이나 동거들인들'이다. 사경에서 '나할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민수기이다. '나할라'와 '나할' 모두 합쳐서 50번 이상 사용된다. 그러나 그 대상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들이나 가문, 특정 지파들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다. 민수기 27장과 36장에서

www.kci.go.kr

'나할라' 는 무려 21회나 사용된다. 이처럼 민수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나할라' 로 표현하고 있으나, 신명기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용법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가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나할라' 로서 규정할 뿐 아니라 그 적용하는 대상에 있어서 사경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그 땅"이라는 공식 문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개인적이거나 특정 지파와 관련해서가 아니다.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려는 의도로 '2인칭 남성 단수' 어미를 고집한다. 이는 신명기가 그 기원과 저작에 있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7. 참고 문헌

강성열, "신명기에 나타난 땅의 신학"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85-102

김상례, "한국인 구약학 박사학위 논문(1931-2010)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 분석", 「구약논단」 제 39집 (2011), 179-204

김지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업(הלחנ)으로서의 땅 개념 연구", 「구약논단」 (2000) 제 9집, 215-234

김회권, 「모세오경 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_____, 「모세오경 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노희원, 「최근의 신명기역사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박신배, "신명기 역사서의 제의 개혁과 신학", 「구약논단」 제 19집 (2005), 95-113

박신배, "앗시리아의 종교정책과 히스기야 종교개혁," 「구약논단」 제 12

www.kci.go.kr

집 (2002), 83-99
신정균, "요시아 성전 수축: 요시아의 개혁과 관련한 역사적 접근", 「구약논단」 제 5집 (1998), 51-76
이미숙, "신명기 10장 12절-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사", 「구약논단」 제 33집 (2009) 51-66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제 29집 (2008), 67-82
장일선,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5 신명기」,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3).
한동구, 「신명기 해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4).
한민수, 「신명기와 땅: 언약의 눈으로 보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8).
Clements, R. E., *Deuteronomy*, 「신명기」, 정석규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2002).
Nicholson, E. W., *Deuteronomy and Tradition*, 「신명기와 전승」, 장영일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Brueggemann, Walter, *The Lan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Clements, R. E., (e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_____, "A dialogue with Gordon McConville on Deuteronom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56 (2003 number 4) 508-516
Craigie, Peter C., *The Book of Deuteronomy*,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Davies, William D., *The Gospel And The Land ; early Christianity and Jewish and Jewish territorial doctrin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www.kci.go.kr

Habel, Norman C.,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Minneapolis:Augsburg Fortress, 1995).

Rad, G. von, *Deuteronomy IDB vol. I*.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_____, *Studies in Deuteronomy*, tr. David Stalker(London: SCM Pres, 1953).

Weinfeld, Moshe,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_____, *The Promise of the Land*,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John J. Scullion S. J. tr. (London: SPCK, 1985).

____, *Genesis 37–50*, John J. Scullion S. J. tr. (London: SPCK, 1985).

www.kci.go.kr

검색어

나할라
약속의 땅
땅 신학
신명기
히스기야

A Study about the differences of the meaning of נַחֲלָה: between Tetrateuch and Deuteronomy

Kyu Seung Han, Ph.D. cand.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differences of the meaning of נַחֲלָה (inheritance/possession) between Tetrateuch and Deuteronomy. The words indicating the land of promise is various in Torah. But this paper only reviews נַחֲלָה as a expression of the land of promise.

In Genesis, God gave the promise of the land to the three patriarchs, Abraham, Issac and Jacob. But in Genesis, the words indicating the land of promise are mainly אֶרֶץ or אֲחֻזָּה. In Exodus, נַחֲלָה means the place to which God leads Israel or Israel itself as the people of God. Leviticus is the most important text that describes the land of promise in the Old Testament. But

www.kci.go.kr

נַחֲלָה is scarcely appeared in Leviticus. Leviticus mainly uses אֲחֻזָּה. Once נַחֲלָה is used in 25:46, it means the hired workers or strangers who live in Israel.

In Tetrateuch, Numbers the most frequently uses נַחֲלָה, for example, in the story of the five daughters of Zelophehad. In Numbers 27 and 36, נַחֲלָה is used 21 times. But in Numbers it indicates a personal or familial inheritance(possession).

In contrast, in Deuteronomy, נַחֲלָה indicates the land of promise especially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2nd person singular) as an inheritance to possess"(Deuteronomy 15:4–5). It is not a personal or familial dimension. נַחֲלָה, in Deuteronomy, is used to show the promise of the land for Israel as a whole community. What is of importance, is that this idea is related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eriod of Hezekiah. In the reign of Hezekiah North Israel perished and many people flowed into Judea. Hezekiah had an ambition to make one Israel.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E.W. Nicholson affirms that Deuteronomy was written in the reign of Hezekiah. Therefore the desire of one Israel penetrates Deuteronomy. Naturally נַחֲלָה, in Deuteronmy, is an expression of the whole community to which God gave an inheritance to possess, and is a theological statement to justify the territorial expansion involving the North Israel in the period of Hezekiah.

www.kci.go.kr

Key words

Nachalah

The land of promise

Land Theology

Deuteronomy

Hezekiah

■ 투고일: 2012년 6월 30일

■ 심사일: 2012년 7월 20일

■ 게제 확정일: 2012년 7월 25일

www.kci.go.kr